

“현안법안 통과·예산 뒷받침…호남 발전 큰 힘 되겠다”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무슨 얘기 나왔나

원내대표·정책위의장부터
예결위 간사까지 총출동
각별한 관심과 애정 표현
“AI 중심도시 조성 등 도울 것”

국민의힘이 27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전북도를 대상으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법안 통과와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약속했다. 최근 호남 구애를 통한 ‘서진(西進)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호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표현도 함께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호남에 많은 빛을 주고 있다. 훨씬 노력할 지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탁상공론을 지양하고 현장을 찾고 들어야 주요 현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정부 예산안의 증액 과정에서 새로 반영할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현지에서 정전까지 듣게 돼 오기를 잡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광주는 높은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춘 민주주의 성지이고 인공지능 혁신산업 선도 도시로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 창업 혁신 기업이 복합된 스마트 타운 조성에도 관심을 두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운영하는데 원내대표인 제가 명목상 정한 것이 아니다. 일정 기간 방문하고 대화하고 동행하고 지원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예결위 간사, 정운천·황보승희·최형두 예결위원 등도 이번 국회에서 호남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돕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통해 광주에 필요한 숙원 사업이 어떤 것인지 경청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내년 예산 심의, 정책 개발, 법안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이 광주에서 무엇을 언제 찾아가 도울 것인가, 속속 살피고 있다”면서 “국민통합위에서 하는 일도 정책위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광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광주 발전 다지는 데 큰 계기를 만들기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 발전에 큰 힘이 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예결위원은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원내대표가 직접 광주에 와서 전호남 정책을 확실히 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이 직접 광주에 온 것은 전호남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27일 오전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가 광주 서구 광주시청 비즈니스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행정통합·나주 SRF 등 민감 현안 협력과제 선정 의견 갈려

광주시·전남도 상생발전위
내달 회의 앞두고 실무회의
일자리박람회·병상교류 등
9개는 논의 순조 지정 유력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 달 말 예정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27일 전남도청에서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후 서재필실에서 광주시 김광휘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공무원과 전남도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공무원, 시도 양측 민간 자문위원들은 시도 상생 협력이 필요한 신규 과제 발굴 및 기존 과제 진행 상황 등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회의에서는 온라인 합동 일자리박람회 개최, 감염병 공동대응 병상 교류,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소충전소 구축 협력 등 9가지가 순조롭게 논의되면서 신규 협력 과제 지정이 유력시 됐다.

다만 시도 행정 통합,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등 민감 현안의 상생 협력 과제 지정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광주시 자문위원 일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 문제와 시도 행정 통합 문제를 시장, 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협력과제로



2020년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실무회의가 27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광주전남 각계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자문위원들이 광주전남 파 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새로 지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전남도 측은 “시도 상생발전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협력 과제 지정은 시도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주 SRF발전소, 행정 통합 문제는 포함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다른 참석자는 전했다.

나주 SRF발전소 가동 여부 및 손실보상 방안 확정 문제는 정부(산업부), 나주시(발전소 인허가권자), 한국지역난방공사(운영사), 전남도, 시민대책위 등 5자가 참여한 민관거버넌스가 가동

중이라는 점에서 의제화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전남도는 보고 있다.

시도 행정 통합 이슈 역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원포인트 회동이 예고된 데다, 다른 현안과 함께 다룰 경우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전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굴한 신규 협력 과제, 군공항 이전 등 기존 협력 과제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내달 말로 예정된 상생발전위 최종 안건을 조만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공공기관 2차 이전 한창인데…국토부, 혁신도시 공문 광주는 패싱

3년간 187건이나 안 보내

광주시 “시즌2 준비 어려움”

국토교통부가 전국 혁신도시에 발송한 ‘2021년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 안내와 ‘혁신도시 시즌2’ 준비를 위한 기업유치 관련 등의 내용이 담긴 주요 공문을 광주시에 는 지난 3년간 187건이나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이 나주에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국토부의 외부 채널이 시간이 갈수록 전남도로 집중되면서 광주시에는 일부 공문이 수년째 발송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광주시 공문 패싱’이 단 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를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 사이의 미묘한 입장차가 빚어낸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

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사사건건 불협화음을 내고,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마련과 발전센터 조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국토부와 사·도·간 업무 라인도 엉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부는 전남도 등지의 혁신도시 관할 지자체에 627건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광주시에는 440건만을 발송해 187건이 광주에는 전달되지 못했다.

문제는 광주가 받지 못한 공문 상당수가 혁신도시 활성화와 시즌 2 준비를 위한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광주시는 국토부의 2021년 국고 보조금을 안내하는 ‘2021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통보’ (지난 9월 10일자)와 혁신도시 기업유치를 위한 ‘2021년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예산 신청 안내’ (8월 31일

자) 공문도 정부로부터 직접 받지 못했다.

이밖에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회의’ (3월 27일자) ‘2020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지침 관련 간담회 개최’ (2019년 9월 18일자) 등의 혁신도시 관련 국토부 회의 관련 공문도 받지 못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관련 공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바람에 회의 개최 여부를 전혀 몰라 회의 준비를 제대로 못하거나 국토부의 현장 방문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국토부 혁신도시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광주시에도 공문을 발송하라’는 건의도 있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전남도가 광주시에 매번 공문을 전달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였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건희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의 부음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냉혹한 국제 기업전쟁에서, 일본으로부터 배워 일본을 뛰어넘고 세계 일류로 우뚝 서신 분, 그리하여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게 만드신 분,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백 조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여 세금을 제일 많이 내신 분, 우리나라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의 공헌자.

평생을 노심초사 하시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본과의 무한경쟁에서 이겨내어, 우리나라 경제인들의 마음 속에 내재된 열등감을 말끔히 씻어내게 하셨습니다.

삼성에서 인사채용 시, 연줄이 아닌 공개채용을 시작하니 모든 회사가 따라 하였고, 회사시스템과 교육방식도 삼성이 먼저 하면 많은 회사가 따라 하였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돌아오지 못 할 먼 곳으로 가시니, 한치 앞을 못 보는 살벌한 경제전쟁에서 누가 있어 십 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까 걱정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명복을 빌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앞드려 기도 드립니다.

- 한 기업인 -